

근대전환기

조선인의 세계 기행과 문명 담론

구 사 회 (선문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근대전환기 조선인의 세계 기행과 문명 담론 |
| 2. 근대전환기 조선인의 세계 체험과 기록물들 | 4. 맺음말 - 문화사적 의의와 함께 - |

국문초록

본고는 개화기로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근대전환기에 있었던 조선인의 세계 기행과 그것에 담긴 문명담론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이 시기에 있었던 조선인의 세계 기행을 일별하여 보았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6차례에 걸친 서구 기행이 있었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인물은 다음과 같다.

1895년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시작으로, 1896년 4월에는 민영환·윤치호·김득련 일행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다녀와서 『환구일록』·『해천추범』·『환구음초』 등의 여행 기록물을 남겼다. 1897년 1월에는 민영환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년 축하식에 다녀와서 『사구속초』를 기록으로 남겼다. 1901년에는 김만수가 프랑스 공사로 임명되어 출발부터 귀국까지의 여행 과정과 활동 내용을 일기로 남겼다. 1902년에 이종응은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사절단으로 다녀와서 견문록인 『서사록』과 한글 기행가사인 『서유견문록』을 남겼다. 김한홍은 1903년 12월부터 1908년 8월까지 미국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와서 견문록인 『서양미국노정기』와

가사 작품인 <해유가>를 남겼다.

이들이 세계를 유력하고 남긴 기록물 양식은 기행문, 한시, 기행가사였다. 기행문은 한문으로 작성되었고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제외하고 모두 일기체 형식이었다. 이 중에서 외교사절단으로 서구 세계를 다녀왔던 민영환이나 이종응, 그리고 김만수의 저작물들은 조정에 공적으로 보고하는 臚錄의 기초 자료가 되는 사행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에 기행한시로 지어진 김득련의 『환구음초』, 한글가사인 이종응의 『서유견문록』이나 김한홍의 <해유가>는 사적인 용도로 저술된 것이었다.

근대전환기에 나온 이들 세계 기행의 기록물들을 살펴보면, 작자들이 하나같이 서구의 근대 문명과 문물에 대해서 놀라움과 호기심을 담았다. 이들은 서구의 선진화된 문물 제도와 과학 문명을 국내에 알려서 개화와 계몽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서구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이전의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계 지리에 주목하면서 시공간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들의 여행 기록물에는 서구의 근대 문물과 제도에 대한 문명 담론과 함께 낙후된 조국의 현실을 되돌아보며 내적 변민을 담기도 하였다.

주제어: 유길준, 민영환, 김만수, 세계 기행, 문명 담론, 기행문학

1. 머리말

조선은 중국을 중심으로 사대교린의 외교 관계를 통해 주변국들과 한정된 교류를 해왔다. 이따금 해상에서 표류되어 일본이나 유규 등을 다녀온 기록도 있었지만 조선인들의 외부 세계 접촉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의 문호 개방은 19세기 말엽인 1876년(고종13) 2월

에 이르러서야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1882년 5월에는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이어서 영국 등 다른 외국과의 통상조약이 뒤를 이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의 해외 교류는 동아시아에 한정되지 않고 서구 세계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 문물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고, 아울러 선각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새로운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다. 당시 19세기 말엽에 이뤄진 문호 개방은 이전의 교류와는 달랐다. 이전의 교류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봉건체제에서 이뤄졌다면, 개화기의 세계 교류는 제국주의에 기초한 서구 열강의 서세동점에서 이뤄졌다.

개화기의 서구 기행도 이전의 중국 여행이나 일본 통신사처럼 처음에는 외교 사절단에 의해 이뤄졌다. 1883년 7월에 민영익(閔泳翊)을 전권대신으로 하는 보빙사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건너갔던 유길준은 돌아와서 서구견문록 『서유견문』을 저술하였다. 이어서 1896년 4월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사절단으로 갔던 민영환, 윤치호, 김득련 일행은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1901년에는 김만수가 프랑스 공사로 다녀오면서 여행 과정을 해외 견문과 함께 『일기』로 남겼다. 1902년에는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의양군 이재각을 수행했던 이종응의 여행 기록도 있다. 김한홍은 1903년부터 6년 동안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온 견문을 기행가사인 <해유가>에 담았다.

이들 선각자들은 세계를 유람하면서 서구의 근대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담론으로 담았다. 이들 대부분은 서구 문명을 놀라움과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속내는 복잡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온 세계 여행의 견문록은 일제강점기에 나온 그것과 담론상의 차이도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 이전까지 이들 선각자들이 해외 체험을 통해 얻은 세계 여행의 기록물을 살펴보고, 그들이 서구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재화시키고 있었는지 문명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근대전환기 조선인의 세계 체험과 기록물들

근대전환기에 조선인의 세계 체험은 서구 세계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의 서구 체험은 대부분 외교 사절단에 의한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들이 남긴 견문록은 근대 문명에 대한 문화적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이전의 중국 체험이나 이후 시기인 일제강점기의 서구 여행과도 담론상의 차이를 보인다.

근대전환기에 나온 이들의 기록물을 살펴보면, 『환구일기』·『부아기정』·『사구속초』·『서사록』·『일록』·『일기책』·『주법공사관일기』·『서양미국노정기』 등은 일기체의 기행문이다. 반면에 『환구음초』는 기행시였고, 『서유견문록』이나 <해유가(海遊歌)>는 국문시가인 기행가사 형태를 취했다. 이 중에서 『부아기정』이나 『주법공사관일기』는 사행을 마치고 조정에 공식 보고하는 등록(騰錄)으로 보이고, 『서유견문』은 기행문보다는 서양의 문화와 제도를 소개하는 입문서에 가깝다.¹⁾

한 마디로 이들 여행 기록은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시대 사행록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근대전환기에 나온 서구 체험의 견문록은 아래와 같다.

2.1.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문명제도

개화기에 해외를 체험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사람은 유길준(兪吉濬)이었다. 그는 1881년에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지도를 받았다. 1882년 10월에는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에 왔던 박영효의 통역을 담당하였다. 1883년 7월에는 미

1) 구지현은 『서유견문』이 전통적 견문록류와 『서양사정』과 같은 지식전달서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복합적이고 경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구지현,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보이는 견문록의 전통과 확대』, 『온지논총』 37집, 온지학회, 2013, 99~123면.)

국에 파견된 보빙사 민영익(閔泳翊)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남았다. 그리고 1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고나서 귀국길에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여행하였다. 그곳에서 지중해로 나와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통해 1885년 12월에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쳐 입국하였다. 그리고 7년간 연금되었다가 1892년 11월에 석방되었다. 그는 연금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의 서구 체험을 바탕으로 1889년 봄에 『서유견문』을 완성하였다. 그렇지만 출판이 늦어지면서 1895년 4월에야 일본 교순사에서 출간하였다. 그리고 『서유견문』이 국한문혼용체로 작성되었는데, 그것은 독자층이 사대부 양반들이었기 때문이다.²⁾

『서유견문』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을 모델로 삼았던 것으로 그것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외에 헨리 휘튼의 『만국공법』이나 헨리 포셋의 『국부책』 등의 서적 등을 참조하였다. 『서유견문』은 전체 20편(‘서’와 ‘비고’ 제외) 71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서유견문』은 여행기나 견문록이라기보다 오히려 서구 문물 제도나 사상을 담은 입문서에 가깝다. 이 중에서 통상적인 여행기로 간주해도 좋을 부분은 체험과 내면 독백의 언어가 보다 생생하게 나타나는 19-20편이다.³⁾

『서유견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유길준은 이 책을 통해 서구의 근대 문물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자신의 개화사상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서유견문』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

국민 가운데 놀고먹는 사람이 적은 나라는 천연자원이 비록 적더라도 가공품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천연자원을 사들여 그들의 재주와 공력으로 가공한 물품에다 몇 배나 비싼 값을 덧붙여 다른 나라에 판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에 물산이 적더라도 다른 나라의 물산이 자기 나라에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놀고먹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자기 나라에 물산이

2) 허경진, 「유길준과 『서유견문』」, 『어문연구』312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441면.

3) 이형대, 「〈서유견문〉의 서구 여행 체험과 문명 표상」, 『비평문학』34호, 한국비평학회, 2009, 238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재주와 지력이 부족하여, 자기 나라의 천연자원으로 다른 나라의 가공품을 사 들여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천연자원이 적기로 천하에 이름났지만, 가공품이 많기로도 만국의 으뜸이다. 그러므로 나라 안에 놓고먹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 나라의 부강은 국민이 부지런한가, 게으른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물산이 넉넉한가, 모자라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 오늘날 서양 여러 나라가 세계의 상권을 잡고서 마음대로 흔드는 것도 이러한 진리에 기초하였을 뿐이다. 아프리카주의 흑색인과 아메리카주의 적색인 같은 경우에 천연자원이 산 같이 쌓여 있고 흙처럼 널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쓸 곳이 어디 있으랴.⁴⁾

유길준은 『서유견문』 제2편에서 세계의 바다와 강과 호수, 그리고 인종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어서 세계의 물산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세계의 물산을 자연이 만들어 낸 천연자원과 사람이 가공한 생산품으로 구별하고 세계 6대주의 물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물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고 부국책을 입론화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나라의 부강은 물산이 풍부한가 부족한가에 달려 있지 않고 그것을 재주와 공력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있다는 것이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근대전환기의 다른 여행 기록물과 달리, 그의 관심은 여행이나 풍물보다 선진화된 서구 문물과 문명 제도에 있었다. 그래서 인지 그는 서구 문물 전반에 걸친 제도를 『서유견문』으로 집대성하여 문명 담론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서유견문』은 여행기라기보다 서구 문물과 문명 제도를 조선인에게 소개하려는 입문서이자, 계도하려는 계몽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2.2. 1896년 민영환 일행의 세계 일주와 기행록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황제대관식을 다녀온 민영환 일행의 여행 기록이 있다. 1895년 8월에 을미사변이, 1896년 2월에는 조선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

4) 유길준(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제2편, 서해문집, 2004, 100~101면.

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발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친일 정권이 무너지고 친러 정권이 주도권을 잡았다. 때마침 建陽元年(1896) 5월 26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2세의 황제 대관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4월에 조선 조정에서는 민영환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윤치호·김득련·김도일 등의 사절단을 러시아에 파견했다.

이들은 4월 1일에 인천항을 출발하여 중국 상해와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서 미대륙을 횡단해서 뉴욕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다시 대서양을 건너 영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을 지나 러시아 수도에 가서 5월 26일에 니콜라이 2세의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였다. 이들의 귀국길은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몽고와 간도를 통하여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부산을 경유하여 여행의 출발지였던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들 사절단은 7개월에 걸친 세계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10월 21일에 조정에 들어와서 복명을 하였다.

이들의 세계 여행은 몇 개의 기록으로 남겨졌다. 먼저 공식적인 사행 과정을 편년체로 기록한 『환구일기(環球日記)』와 견문과 감회를 시로 형상화했던 김득련의 기행 시집 『환구음초(環球吟艸)』가 있다. 그리고 민영환의 『해천추범』과 작자를 알 수 없는 『부아기정』도 있다. 『환구일기』와 『환구음초』는 김득련이 서술한 것이다. 이들은 사행록의 전통을 계승하며,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⁵⁾ 『해천추범』은 민영환이 『환구일록』에서 인칭을 바꾸고 자신의 개인사가 부분적으로 첨가된 것이다. 『부아기정』은 『환구일록』의 골격을 추려서 작성한 등록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당시의 사행 과정을 영문으로 기록한 윤치호의 『일기』가 있다.

5) 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으로 미룬다. (최식, 「1896년 아라사 사행, 『환구일기』와 『환구음초』 -사행록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라사 사행-, 『한문학보』20권, 우리한문학회, 2009, 199~222면.)

2.3. 1897년 민영환의 『사구속초』와 서구 문명

광무 원년(1897) 1월에는 민영환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년 축하식에 다녀온 기록인 『사구속초(使歐續草)』가 있다. 당시 군부대신으로 있던 민영환은 러시아에서 돌아와서 석 달도 못 되어 다시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어 사절단을 이끌고 영국 런던을 향해 떠났다.⁶⁾ 이들은 3월 24일에 인천을 출발하여 상해·나가사키·홍콩·싱가포르·수에즈운하·오데사·상트페테르부르크·런던 등을 거쳐서 영국 여왕의 즉위 60년 축하식을 참석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에 돌아오는 기록은 없다. 이것은 민영환이 도중에 면관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⁷⁾

『사구속초』에는 작자가 여행하면서 보거나 겪었던 서구의 근대 문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는 많지 않은 분량이지만 도시와 건물, 철도와 교통 시설, 전기와 엘리베이터, 교회당이나 종교 의식, 동물원과 박물관, 연극 등과 같은 각종 풍물과 풍습을 담았다. 일기체 형식의 산문 기록인 『사구속초』에서는 사실적인 서술 방식과 객관적인 서술 태도가 돋보이는 특징이 있다.

2.4. 1901년 김만수의 프랑스공사 일기

1901년도에는 석하(石下) 김만수(金晩秀; 1858~1936)가 프랑스 공사로 임명되어 그곳을 다녀왔던 여행 기록이 있다. 석하는 1901년 3월 16일에 프랑스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어 프랑스에 주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4월 5일에 한양을 출발하여 6월 6일에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였다. 그는 현지에서 6개월 정도 외교 활동을 벌이다가 도중에 병으로 사임하고 11월 22일에 귀국길에 올랐고 1902년 2월 10일에 한국하였다. 그가 한성에서 파리까지 가는

6) 사절단은 민영환 이외에 민상호, 이기, 김조현, 김병욱, 손병국 등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일등참사관이자 주임관 1등이었던 閔商鎬는 미국에서 출발하여 영국 런던에서 합류하였다.

7) 신석호, 『해설』, 『민충정공유고』, 국사편찬위원회, 1958, 7면.

기간은 53일, 돌아오는데 러시아 체류 1개월을 포함하여 81일이 걸렸다.

김만수는 당시 출발부터 귀국까지의 여행 과정과 활동 내용을 일기로 남겼다. 그의 여정은 인천을 출발하여 상해를 거쳐 싱가포르, 스리랑카, 예멘의 아덴, 수에즈해협, 이집트의 포트사이드 항구, 이탈리아, 프랑스 마르세이유 항구를 거쳐 육로로 파리에 갔다. 귀국길은 파리에서 독일 베를린, 러시아 수도 상트페트로부르크,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에 접해있는 오데사 항구⁸⁾, 터키 콘스탄티노플, 이집트 수에즈운하, 홍해, 아덴, 스리랑카, 싱가포르, 중국 여순을 거쳐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서 임금 앞에 복명하였다.

김만수는 프랑스 공사로 활동하면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인사들을 만났고, 당시의 세계정세에 관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일기에 남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록(日錄)』·『일기책(日記冊)』·『주법공사관일기(駐法公使館日記)』을 남겼다. 그 중에서 『주법공사관일기(駐法公使館日記)』는 『일기책(日記冊)』에서의 공적인 업무 내용을 추려서 정서한 것으로 조정에 보고를 위해 작성했던 등록(騰錄)으로 보인다.

2.5. 1902년 이종응의 『서사록』과 『서유견문록』

1902년에는 李鍾應(1853~1920)이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 사절단에 다녀와서 견문록인 『서사록』과 한글 기행가사 『서유견문록』을 남겼다. 이들 사절단은 義陽君 李載覺을 특명대사로 대표하였고, 이종응이 隨員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예식원 번역 과장이었던 고희경과 참리관 김조현이 따라갔다. 이종응은 『서사록』에다 한문으로 여정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였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사절단은 1902년 4월 6일에 한양을 출발하여 일본과 태평양을 지나서 캐나다와 미국을 거쳐 6월 6일에 영국 런던에 도착하였다. 6월 13일에는 버킹검 궁전을 예방하여 대한제국 황제의 국서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영국 황제의 병환으로 대관식이 연기되자 7월 7일에 귀국길에 올라 프랑

8) Odessa,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도(州都)임.

스·이탈리아·이집트·에디오피아·예멘·콜롬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홍콩·중국 등 14개국을 거쳐 8월 20일에 인천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임금 앞에 복명하였다. 여정은 출발부터 4개월 16일, 모두 137일이 걸렸다.

1902(光武 6년 壬寅) 여름 5월에는 대영제국의 군주의 즉위 대관예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이에 광무황제께서 義陽君 李載覺을 파견, 대영제국의 대군주께 치하하게 했다. 나도 비서의 책임을 맡아 수행하면서 공·사 문서와 크고 작은 비용, 통과 여행한 여러 나라의 산천과 인물 풍속 등에 관한 특이한 건문, 서양 여러 나라의 장관을 널리 보고 들은 바를 빠짐없이 기록하게 되었다. 여기 기록한 문자(見聞記)는 비록 더할 수 없이 천속하고 비루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백 가지로 바쁜 시간 중에 정신을 집중해서 적어둔 것이기에 이 기록을 책으로 엮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 책을 집안에 비치해서 집안 청년들이 이를 열람해보고 그 당시의 장관과 고생이 어떠한가를 알게 할 뿐이다.⁹⁾

이는 이종응이 서술했던 『서사록』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작자 자신이 1902년 대영제국 황제의 대관식에 파견된 경위와 책무를 언급하면서 세계 건문록인 『서사록』을 작성하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다. 작자가 집안 젊은이들이 이를 읽고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사록』은 건문록의 일종으로 여행하면서 날짜와 여정에 따라 사건을 날마다 기록하였다. 반면에 『서유건문록』은 사행가사로서 귀국해서 『서사록』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3·4조 또는 4·4조를 기본으로 4음보 가사 율격에 따라 기록된 한글가사이다. 길이는 2음보 1구로 844구의 장형가사이다.¹⁰⁾

9) 李鍾應, 『西槎錄』. (김원모, 『李鍾應의 『西槎錄』과 『서유건문록』 자료』, 『동양학』 32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2, 133면.)

10) 가사는 60구가 밀도는 것을 단형가사, 300구를 밀도는 것을 중형가사라 할 수 있고, 그 이상이 것을 장형가사로 분류된다. (홍재휴, 『가사』, 『국문학신강』, 국문학신강편찬위원회 편, 새문사, 1985, 173면)

『서사록』이 산문 양식의 기행문이라면 『서유견문록』은 가사 양식으로 여행하면서 보고 느꼈던 인상과 소회 등을 서술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정에 따라 사건을 서술된 것은 비슷하지만, 내용상으로 전자가 객관적이라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유견문록』의 가사 작품 마지막에 “임인 팔월 이십팔일 이 칙이 다른 칙과 다르니 타닌은 번역하야 가든 못할 사”라고 적고 ‘통정’에다 다음 내용을 추가하였다.

“서양 영국 황제 디관네시에
황제피하 조축을 봉승호고 갓실찌 보고 듯난디로 디강 기록호며
만일 듯고 보난 거슬 난낫치 기록호면 도로혀 풍설이 만를듯 습불존일호노
라
오즈 마늘 듯 호나 디강 뜻만 보난 거시 칙보난 범일 듯”¹¹⁾

작자인 이종응은 ‘통정[通情]’에서 영국 황제의 대관식에 다녀오면서 보고 들은 것을 대강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자세히 기록하면 오히려 구설 때문에 없는 것만 못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잘못 쓴 글자도 많으니 대강 뜻만 보라고 말하고 있다. 작자가 견문록인 『서사록』 말고도 기행가사인 『서유견문록』을 따로 지은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사록』은 일종의 사행록으로 객관적이고 공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 조선시대 사행단의 실무책임자는 연행록을 바탕으로 간추려서 조정에 보고할 등록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서유견문록』은 한문에 익숙하지 못한 집안 아녀자를 염두에 두고 교육용 자료로 작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¹²⁾

11) 李鍾應, 『서유견문록』. (김원도, 앞의 논문, 133면.)

12) 정홍모는 <서유견문록>이 외국에서 견문한 근대 적 풍물에 대한 보여주기식의 서술만이 있을 뿐 당대의 국제정세나 조선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고민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하였다. 그것은 외부세계와 접촉할 기회가 드문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호기심 충족과 대리 만족을 위해 작품을 창작한 데서 오는 한계이거나, 작자가 가진 문제의식의 한계로 보았다. (정홍모, 『20세기 초 서양 기행가사의 작품 세계』, 『한민족문화연구』31집, 한민족문화학

2.6. 1908년 김한홍의 『서양미국노정기』와 <해유가(海遊歌)>

金漢弘(1877~1943)은 1903년 12월부터 1908년 8월까지 6년 동안 일본과 미국의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와서 견문록인 『서양미국노정기』와 가사 작품인 <해유가(海遊歌)>로 남겼다.¹³⁾ 그는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한학을 하다가 1903년 서울을 다녀오면서 진주에 들렀다가 친구의 권유로 일본을 거쳐 1904년 2월에 미국 하와이에 갔다. 그는 하와이에서 영사관 서기로 근무하다가 1908년 8월에 귀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양미국노정기』은 이전에 나온 김득련의 『환구일기』나 이종응의 『서사록』처럼 한문으로 작성된 여행기이자 견문록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1903년 9월 28일 한성을 출발하여 진주를 지나 마산항을 통해 화륜선을 타고 일본 시모노세끼, 고오베, 요코하마를 거쳐 태평양을 건너 1904년 2월 22일에 미국령 하와이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반면에 <해유가>는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부분으로 나뉜다. 전자는 고향을 떠나 서울과 진주, 그리고 하와이로 가기 위한 부산까지의 노정 부분을 담고 있다. 후자는 부산에서 일본, 일본에서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까지의 노정, 하와이의 풍물과 생활, 그리고 미주 대륙으로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생활과 풍물, 미국을 떠나 일본을 경유하여 부산에 도착하여 귀향하는 부분까지이다.

가사 분량은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944구라는 장편으로 기행가사에 해당한다. <해유가>는 미국 사회의 각종 제도와 생활 풍속을 깊이 있게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략하거나 모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보았다.¹⁴⁾ 그리고 <해유가>는 근대계몽기라는 격변기에 한 지식인이 서양 체험을 통해 자아와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구체적

회, 2009, 27~53면.)

13) 일명 ‘<서유가(西遊歌)>’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노준, 『해유가(일명 서유가)의 세계인식』, 『한국학보』 64, 일지사, 1991, 194~239면.)

14) 정홍모, 앞의 논문, 53면.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의를 지닌 작품이다.¹⁵⁾

3. 근대전환기 조선인의 세계 기행과 문명 담론

근대전환기에 나온 세계 여행의 기록물은 이전의 중국 연행이나 일제강점기의 서구 유람과 구별되는 담론적 특징이 있다. 이전 시기에 나온 기행문에 비해 새로운 서구 문물을 전문하면서 받았던 문명 충격과 함께 이전과 다른 세계 지리와 시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적으로 이 시기의 세계 기행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일제강점기의 그것에 비해 내용면이나 양식면에서 일정한 유형을 보인다.

3.1. 서구의 근대 문물과 문명 의식

조선인이 서구 문물을 접한 것은 중국을 통해서였다. 중국 사행을 다녀오면서 호기심이 많은 인사들이 천주당이나 유리창을 들락거렸고, 서양 신부를 만나 서양 자명종이나 천문대를 논의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조선인이 서구 과학 문물을 접하는 것은 그것에 한정되었다. 그러다가 개화기에 국호를 개방하면서 드디어 조선인은 주로 공식적인 외교 사절의 형식으로 서구 세계에 가서 그들의 근대 문물을 직접 체험하였다. 따라서 조선인의 서구 체험은 개화기부터 시작되었고, 이전의 중국이나 책을 통한 간접 체험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근대전환기에 조선인들은 처음에 서구를 유력하면서 그들의 근대 문명을 대면하면서 경이와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낙후된 조선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앞장서서 개화를 주창하고 문물을 받아들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

15) 최현재, 『미국 기행가사 <해유가>에 나타난 자아인식과 타자인식 고찰』, 『한국 언어문학』58집, 한국언어문화회, 2006, 153~175면.)

고 이들은 서구를 다녀오면서 그들이 목도했던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부지런히 기록으로 남겼다. 이들 기록을 살펴보면 기록자에 따라서 편차가 없지 않았지만 서구의 근대 문명과 문물을 주요한 서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서구의 문화와 문물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지리와 사회, 풍물과 풍속, 역사와 정치, 종교와 예술, 경제와 세금, 교육이나 의료 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문물제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기록해 나갔다. 또한 이들은 여행 과정에서 목도했던 도시와 도로, 교통과 통신, 철도와 기차, 건물과 호텔, 영화와 연극 등을 빼놓지 않고 담았다. 박물관과 미술관, 전화기나 전등과 같은 전기 시설, 엘리베이터와 케이블카, 동물원과 식물원, 천문대와 조선소 등을 방문하여 그 내용을 기록으로 곳곳에 남겼다.

예로써 당시 서구사회에서 대표적인 근대 문명으로 표상되는 대표적인 문물은 철도와 기차였다. 이들 여행자들이 조선을 떠나 서구 세계를 다녀오면서 가장 접촉이 많았던 근대 문물도 배와 기차였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여행기에 그것들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기록자들의 답론을 살펴보자.

<예1>

<坎拿大 乘火輪車 向東行九千餘里>

<캐나다에서 기차를 타고 동쪽을 향해 9천 여리를 가면서>

汽輪駕鐵迅如飛	기차바퀴가 철로 위를 나는 듯이 빨리 달리며
行止隨心少不違	가고 멈춤이 마음대로 조금도 어김이 없네.
透理何人知此法	이치를 꿰뚫어 누가 이 법을 알아냈는가.
泡茶一葉瓶神機 ¹⁶⁾	차를 한 잎 끓이다가 신비한 기계를 만들었다.
風馳電掣上嵯峨	바람처럼 빠르게 전기로 끌어 높은 곳을 올라가니
萬水千山瞥眼過	수만 물과 수천 산이 별안간 눈앞을 스친다.

16) 작자 주: ‘昔英人瓦妬, 見茶罐水沸, 罐蓋或舉或覆, 推此透理始造汽.’ (옛날 영국인 ‘와튼’이 다관에서 물이 끓으면서 다관 뚜껑이 들렸다 뒤집혔다 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으로 미루어 이치를 깨달아 비로소 기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長房縮地還多事 장자방의 축지법도 도리어 번거로우니
十日郵程在剎那¹⁷⁾ 열흘 동안 갈 역마차의 여정이 순식간이로구나.

<예2>

鍊路馬車¹⁸⁾ <철로마차>
從橫鍊軌布衢街 종횡으로 철로가 길거리로 펼쳐있고
雷碾朱輪駕兩騮 우레 소리 붉은 바퀴를 두 말이 끄는 듯.
車上能容三十客 전차 위에는 삼십 명을 태울 수 있는데
飛樓行閣突然排¹⁹⁾ 날아가는 누각이 갑자기 밀려나는 것 같다.

<예3>

15일. ...오전 10시경에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한 시간쯤 갔는데 능히 1백리를 달렸으니 그 빠르기가 汽船에 비하여 3배는 된다. 상고하건대 기차의 제도는 기계가 한 차에 여섯 차량이 달렸고 석탄차 하나에 네 차량이 달렸는데 두 차가 앞에서 끌면 그 뒤로 각 차가 연결되어 수십 량의 많은 것을 실을 수 있다. 객차는 상·중·하의 세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기간차가 앞서 떠나면 모든 차가 따르는데 그 빠르기가 마치 화살이 시위를 떠난 것과 같고 새가 날개를 편 것과 같아 귓속에는 다만 바람소리가 들릴 뿐이다. 찾길이 지나는 곳에는 사람이 두어 길을 지키며 손에 회고 푸르고 붉은 세 빛깔의 기를 가지고 때를 맞추어 분별하기 위해서 흔들여 표시한다. 만일 궤도에 장애가 없으면 흰 기로 차 부리는 사람에게 1,2리 밖에서 보여주면 이것을 분명히 보고 즉시 차를 몰아 유쾌히 간다. 혹 찾길이 조금이라도 상해서 급히 고쳐지지 못하겠으면 즉시 푸른 기로 표시하면 차가 천천히 가다가 드디어 멈추고 기다린다. 혹 찾길이 크게 무너져서 수리하기에 시간이 걸리면 붉은 기를 보이게 되면 드디어 차를 정지하고 가지 않는다. 차 안에 방의 위치를 깔아놓은 것이나 기구들이 정결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안에서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무릎을 맞대고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창을 열고 멀리 바라볼 수도 있어 자못 적막하지가 않다. 차의 좌우는 모두가 푸른 발과 들인데 보리씨가 이미 두어 치나 자랐다. 가는 길에 일기가 온화하고 따뜻하여 우리나라 서울의 기후와 다를 것이 없다.....²⁰⁾

17) 김득런, 『환구음초』, 1897, 동경인쇄, 22면.
18) 작자 주: ‘亦有電氣代馬’(역시 전기가 말을 대신하였다.)
19) 김득런, 같은 책, <鍊路馬車>.
20) 민영환(이민수 역), 『민충정공유고』, 『사구속초』, <5월 15일>.

<예1>은 김득련이 1896년 4월 30일에 캐나다 벤쿠버에서 기차를 타고 미국 뉴욕으로 가면서 지은 한시 작품이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기차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작자는 놀란 눈으로 기차가 나는 듯이 철로 위를 빨리 달린다고 신묘하게 여기며 감탄하고 있다. 열차 속도가 축지법보다 빠르다고도 하였다. 민영환의 『해천추범』에서 기차는 바람이 달리고 번개가 치는 듯하니, 보던 것이 금방 지나가 거의 꿈속을 헤매는 것 같다고 적고 있다.²¹⁾ 김득련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동물원이나 교회당, 황궁과 황제 능묘, 극장이나 영화관, 농업박물관과 감옥서, 조폐소와 면직공장 등을 방문하였다. <예2>는 당시 길거리에서 목격한 전차를 보고 느낀 바를 시로 담은 것이다.

<예3>는 1897년에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축하식 사절단의 전권공사로 갔던 민영환이 5월 15일자 『사구속초』에 기록했던 일기이다. 그는 영국 방문에 앞서 러시아 황제에게 전달할 고종황제의 국서를 들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에 있는 오데사로 입항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위의 예문은 당시 탑승했던 기차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서 작자는 기차의 속도와 제도를 언급하고 객실 등급과 신호 체계, 내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기차의 속도가 화살이 시위를 떠난 것 같고 새가 날개를 편 것과 같아서 귀속에는 바람소리만 들린다고 놀라움을 적고 있다. 6월 10일 런던에 가서도 길을 가다가 구름다리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기록으로 담았다.

이들 근대전환기의 여행 기록에서는 작자들이 서구의 근대 문명과 문물에 대해 놀라움과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빠짐없이 기록해나갔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에 알려져서 개화사상을 고취시키고 계몽하고자 했다.

3.2. 세계 지리와 시공간의 확대

근대 이전에 조선인이 받아들인 세계는 중국과 그 주변국에 한정되었다고

21) 위의 책, 『해천추범』, <4월 30일자>. “...風馳電掣, 所見瞥過, 殆若夢境, 依依不能記憶, 仍車重宿.”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중국을 통해 서구에 대한 정보와 일부 문물이 유입되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교류와 유입은 개화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시기에 서구로 가는 여행길이 새로 열렸다. 하나는 일본과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여 다시 대서양을 넘어 유럽으로 가는 방법이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을 통해 동지나해와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닿았다. 전자로는 유길준이 1883년 7월에 민영익(閔泳翊)의 수행원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갔다가 대서양을 통해 유럽을 거쳐 돌아왔다. 1896년 4월에는 민영환 일행이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가면서 부득이 선택했던 항로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1902년에 이종응도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의양군 이재각을 수행하면서 이 길을 선택했다. 후자는 광무 원년(1897)에 민영환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년 축하식에 갈 때, 1901년 4월에 김만수가 프랑스 공사로 부임하기 위해 갔던 항로였다.

귀국길은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유길준처럼 지구를 일주하거나 1896년 민영환 일행처럼 되돌아오지 않고 러시아 시베리아를 통해 블라디보스톡과 부산항을 거쳐서 인천항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1901년 김만수는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과 러시아를 거쳐 오늘날 우크라이나 오대사항구를 통해 되돌아오기도 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갔다.

근대전환기에 이뤄졌던 세계 기행에서는 한결같이 시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최초의 서구 견문록인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유길준은 이미 1881년도에 일본을 시작으로 1883년 7월에 태평양 날짜변경선을 넘어 미국으로 활동 공간을 넓혔다. 1885년에는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 각국을 방문하였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인도양을 지나서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쳐 제물포로 돌아왔다. 그야말로 지구 한 바퀴를 돈 셈이다.

『서유견문』은 「서문」과 「비고」와 20편 7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앞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작자는 『서유견문』을 서술하면서 지구의 기준이나 5대양 6대주, 세계의 산천이나 인종과 같은 세계지리를 제1편과 제2편에 배치하였다. 제1편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태양계의 존재 방식과 지구의 실체, 잘못알고 있던 천동설과 지동설, 날짜선과 같은 지구과학을 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지구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세계 6대주로 제시하였다. 제2편에서는 세계의 바다와 강, 그리고 호수를 개괄하였고, 세계의 인종과 물산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처럼 작자인 유길준이 『서유견문』의 제1편과 제2편에다 세계 지리를 배치하였던 것은 조선인들에게 시공간이 확장된 세계적 시각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그동안 지배해왔던 중국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외부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고 조선의 문명개화를 고취시키려는 사명감도 함께 작동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서유견문』에서 유길준이 세계지리에 기초하여 제시한 확장된 시공간 의식은 1896년 러시아를 향해 떠났던 민영환 일행의 여행 기록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다. 민영환 일행은 4월 1일에 인천항을 출발하여 중국 상해와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 북미 대륙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기차로 북미 대륙을 횡단하여 워싱턴과 뉴욕을 거쳐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을 지나 러시아 수도에 도착하여 5월 26일에 니콜라이 2세의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였다. 이들 일행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몽고와 간도를 통하여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부산을 경유하여 여행의 출발지였던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들 사절단의 여정은 먼저 5대양 중에서 북극해와 남극해를 제외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횡단했고, 지중해를 거쳤다. 6대주에서는 오세아니아와 남아프리카를 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지났고 시베리아를 횡단하였다. 이들의 여행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세계 일주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여행 기록을 살펴보자.

4월 22일(음 10일) 흐리고 개고하는 것이 절반씩임. 오늘은 바람 까부는 것

이 조금 줄었다. 겨우 갑판에 올라가보니 다만 하늘만 아득하고 물은 끝이 없다. 尹隨員 致昊는 일전에 실족해서 외쪽 무릎을 다쳐서 중국 의사를 청해서 계속 치료했는데도 낫지 않으니 민망하다.

4월 22일(음 10일) 맑음. 배가 가는 것이 자못 평온하다. 정신을 차려 갑판에 올라가서 바다 기운을 호흡하니 시원함을 느끼겠다. 서양 사람의 말을 들으니 지구가 3백 60도인데 동서가 각각 1백 80도이다. 낮에 동쪽이 午時면 밤엔 서쪽이 오시이니 이것은 아세아와 아메리카가 낮과 밤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지구는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도는 것이니 가령 두 사람이 각각 시계를 가지고 서로 1백80도에서 만나면 모두 같은 시간에 만나지만 마땅히 11일 丑時가 도로 10일 축시가 된다고 하니 이는 지구가 동쪽은 기울고 서쪽은 높아서 낮과 밤이 서로 반대여서 이틀 같으면서도 실은 하루이다. 이는 땅이 그 시간을 당하면 어제와 오늘이 합쳐서 하루가 되는 것이니 이는 반드시 이학가의 격치의 학설로써 줄지에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2일을 계속해 써서 그 날짜를 기록한다.²²⁾

민영환 일행이 배를 타고 태평양의 날짜선을 지난 것은 4월 22일이었다. 김득륜은 4월 22일 일기에 날짜와 끝없는 태평양의 풍광, 그리고 윤치호의 무릎 부상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4월 22일 일기를 다시 추가하여 날짜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참고로 날짜선에 대해서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도 자세히 논의된 바가 있다. 민영환은 지동설과 날짜선에 따라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차이가 생기는데 대해 22일자 일기를 거듭 작성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도학자들의 성리학설로는 끝내 풀 수 없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3.3. 문명 담론과 부강책, 그리고 내적 변민

근대전환기에 선각자들은 서구 세계를 유력하면서 그들의 선진 문명과 부강함을 목격하고 놀라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조선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세계 기행의 내용을 열심히

22) 민영환 지음(조재곤 편역), 『해천추법』, 책과함께, 2007, 40~44면.

기록했고 조선의 부강책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편으로 내적 번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최초의 서구사회를 일주했던 유길준도 『서유견문』을 저술하면서 국가의 부국책을 강구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려청자는 천하에 유명한 것이고, 이충무공의 거북선도 철갑선 가운데는 천하에서 먼저 만든 것이다. 교서관의 금속활자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깊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편리한 방법을 경영하였더라면, 이 시대에 이르러 천만 가지 사물에 관한 세계 만국의 명예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후배들이 앞 사람들의 옛 제도를 윤색치 못하였다.²³⁾

이는 유길준이 『서유견문』 제14편에서 개화사상을 논의하면서 말미에 우리의 부국책을 반성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유길준은 우리의 고려청자나 거북선, 그리고 금속활자를 예로 들어 우리 조상들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훌륭한 문물을 제작하였으나 후손들이 그것을 제대로 계승하여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강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국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유길준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서유견문』을 저술했다고 짐작된다.

6월 30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늦게 천둥치고 비가 내림. 상고하건대, 러시아의 기선은 189척이요, 해군은 3만, 해군 장교는 1,245명이다. 육군에 비하면 적은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는 사방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 방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²⁴⁾

당시 서구 세계를 유력하면서 남긴 기록물들을 보면, 사람에 따라 처지나 관점에 따라 편차가 있기 마련이다. 1902년에 영국 에드워드 7세 대관식에 갔던 이종응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구 문명과 문물에 관심을 보였

23) 유길준(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제14편, <개화의 등급>, 2004, 402면.

24) 민영환 (이민수 역), 『민충정공유고』 권3, 『해천추법』, 일조각, 2000, 150면.

으나 그는 상대적으로 도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민영환은 정치가이자 군부대신으로써 문화 예술이나 통상보다는 부국강병과 관련된 군사력이나 군수 시설에 관심이 많았다. 위의 인용 예문은 1896년 6월 30일 민영환의 일기이다. 이날 윤치호는 민영환에게 교도소나 병원, 또는 공공기관을 방문하기를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군사제도 및 군사 양성, 러시아의 군함이나 해군에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그가 1897년 1월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년 축하식에 가면서 러시아를 경유하면서 쓴 다음 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월 19일

...彼得 大帝의 말 탄 동상을 세웠는데 오른손에는 고삐를 잡고 왼손으로는 북쪽을 가리켜 말을 몰아가는 형상을 했는데 자못 웅망하고 사납다. 또 상고하건대 피득은 서기 1672년에 나서 나이 25세에 즉위했는데 나라 안에 어지러운 일이 많은 것을 보고 변장하고 나가서 영국에 유학하여 선박의 정치 및 算學과 일체의 물건 만드는 학문을 배워 가지고 돌아와서 수도를 비로소 지금의 페테르부르크로 옮기고 통상으로 재산을 모았다. 한편으로는 霸術로 각국과 연달아 싸워 모두 이김으로써 드디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나이 56세에 죽으니 나라 사람들이 사모하여 그 이름으로 수도의 이름을 짓고 중흥의 영주라고 일컬었다.²⁵⁾

민영환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다가 러시아 역사상 가장 뛰어난 통치자였던 표트르 대제(1672~1725)의 동상을 보고 적은 일기이다. 표트르 대제는 절대주의 왕정을 확립하고 각종 개혁을 통해 러시아를 대제국으로 발전시킨 영웅이었다. 민영환은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이나 군사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그의 행적과 업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 민영환의 표트르 대제에 대한 기록은 그에 대한 단순한 정보라기보다 후진국이었던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발전시켰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주의 환기와 함께 조선의 부국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도가 작용하였다고 짐작된다.

이처럼 서세동점의 국가적 위기에서 국가 부강책의 답론은 개화 사상가들

25) 위의 책, 권4, 『사구속초』, 일조각, 2000, 236면.

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의 서구 기행에서는 근대 문물에 대한 감탄에 앞서 조선의 운명을 걱정하는 내적 번민을 담기도 하였다.

<波蘭國古都>²⁶⁾

昔日波蘭國
今俄一府城
依然宮闕在
還數暮鍾聲
歌舞繁華地
殘花寂寞紅
遺民黍黍感
時有泣春風

<폴란드의 옛 수도>

옛날 폴란드는
지금은 러시아의 한 부성(府城)이다.
예전 그대로 궁궐이 남아 있고,
오히려 자주 저녁 종소리가 들린다.
노래와 춤이 번성하고 화려했던 곳이
쇠잔한 꽃잎만 쓸쓸하게 붉다.
나라 잃은 백성들은 망국의 슬픔에
때때로 봄바람에 눈물을 흘린다.²⁷⁾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는 유럽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길목의 하나였다. 민영환 일행은 영국에서 배를 타고 폴란드를 거쳐 러시아로 가는 도중이었다. 당시 폴란드는 나라가 망해서 러시아의 속국 상태로 있었다. 화자는 폴란드의 지난날 화려했던 모습과 현재의 쓸쓸한 모습을 대조시켜 망국의 설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화자는 그러한 폴란드에 대해 눈물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작자가 외세의 침략에 놓인 조선의 모습을 떠올리며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904년 2월에 미국 하와이에 가서 영사관 서기로 근무했던 김한홍의 <해유가>에서도 그와 같은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서구의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들의 선진 문명에 대해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다가도 이내 우울함을 떨칠 수가 없다. 그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망국의 기운을 상기하면서 내적 번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火輪船에 돛다라라 半島江山 츠즈가즈/빛탄지 二十餘日에 日本新戶 到

26) 작자 주: ‘今爲俄羅斯初界’(오늘날 러시아의 첫 경계가 되었다.)

27) 김득런, 『환구음초』, 1897, 동경인쇄, 26면.

着나라/不共戴天 네 나라나 東洋江山 반갑도다/下陸호 數日後에 安東丸 다시 타고/長崎馬關 다시보고 大韓을 츠즈 올시/...../大聲欲聞 同族트라 엇지호야 니地境고/三千里 錦繡江山 地靈니 不足면가/心猿意馬 저분트라 治進亂退 無赦也아/上和下陸 數千年에 泰平無事 할찌 예는/先正後裔 니안닌가 國家柱石 自稱호고/高官大職 獨擅호며 政府權利 主張호야/窮心志之 所樂으로 無所不爲 任意타가/有事호는 今日에야 鰍魚갓치 謀漏호니/大聲一問 吾輩트라 誰怨誰尤 다시 할고...28)

김한홍은 1908년 8월에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일본의 에도와 나가사끼를 경유했다. 윗부분은 당시의 심리 상태를 읊은 것이다. 그는 미국행에 앞서 나라에 대한 근심과 반일 감정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귀국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불공대천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 동쪽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일깨우고 있다. 지난 태평시대를 상기시키면서 당시에 국정을 농단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있었다.

4. 맺음말 - 문화사적 의의와 함께

19세기 말엽에 이뤄진 문호 개방으로 조선인의 세계 체험은 이전처럼 중국과 일본에 머물지 않고 서구 세계로 확장되었다. 이 논문은 당시 개화기로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근대전환기에 있었던 조선인의 세계 기행과 그것에 담긴 문명담론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이 시기에 있었던 조선인의 세계 기행을 일별하여 보았다. 1895년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시작으로, 1896년 4월에는 민영환·윤치호·김득련 일행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2세의 대관식에 다녀와서 『환구일록』·『해천추범』·『환구음초』 등의 여행 기록물을 남겼다. 1897년 1월에는 민영환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년 축하식에 다녀와서 『사구속초』를 기록으로 남겼

28) 박노준, 앞의 논문, 237~238면.

다. 1901년에는 김만수가 프랑스 공사로 임명되어 출발부터 귀국까지의 여행 과정과 활동 내용을 일기로 남겼다. 1902년에 이종응은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사절단으로 다녀와서 견문록인 『서사록』과 한글 기행가사인 『서유견문록』을 남겼다. 김한홍은 1903년 12월부터 1908년 8월까지 미국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와서 견문록인 『서양미국노정기』와 가사 작품인 <해유가>를 남겼다.

이들이 세계를 유력하고 남긴 기록물 양식은 기행문, 한시, 기행가사였다. 기행문은 한문으로 작성되었고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제외하고 모두 일기체 형식이었다. 이 중에서 외교사절단으로 서구 세계를 다녀왔던 민영환이나 이종응, 그리고 김만수의 저작물들은 조정에 공적으로 보고하는 牘錄의 기초 자료가 되는 사행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에 기행한시로 지어진 김득련의 『환구음초』, 한글가사인 이종응의 『서유견문록』이나 김한홍의 <해유가>는 사적인 용도로 저술된 것이었다.

근대전환기에 나온 이들 세계 기행의 기록물들을 살펴보면, 작자들이 하나같이 서구의 근대 문명과 문물에 대해서 놀라움과 호기심을 담았다. 이들은 서구의 선진화된 문물 제도와 과학 문명을 국내에 알려서 개화와 계몽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서구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이전의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계 지리에 주목하면서 시공간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들의 여행 기록물에는 서구의 근대 문물과 제도에 대한 문명 담론과 함께 낙후된 조국의 현실을 되돌아보며 내적 번민을 담기도 하였다.

근대전환기에 있었던 이들 선각자들의 서구 체험과 견문 기록은 조선이 오랜 침묵과 은둔에서 벗어나서 서구의 새로운 근대 문명과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19세기 말엽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진 조선의 서구 교류는 근대 문명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참고문헌

1. 자료

『부아기정』, 『사구속초』, 『서사록』, 『서양미국노정기』,
『서유견문』, 『서유견문록』, 『일기책』
『일록』, 『주법공서관일기』, 『환구음초』, 『환구일록』.

2. 논저

구사회, 『대한제국기 주불공사 김만수의 세계 기행과 사행록』, 『동아인문학
회』 29집, 동아인문학회, 2014.
구지현,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보이는 견문록의 전통과 확대』, 『온지논총』
37집, 온지학회, 2013.
김원모, 『李鍾應의 『西槎錄』과 『서유견문록』 자료』, 『동양학』32권,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2.
민영환 저(이민수 역), 『민충정공유고』권3, 『해천추범』, 일조각, 2000.
민영환 지음(조재곤 편역), 『해천추범』, 책과함께, 2007.
박노준, 『<해유가>(일명 서유가)의 세계인식』, 『한국학보』64집, 일지사, 1991.
신석호, 『해설』, 『민충정공유고』, 국사편찬위원회, 1958.
양지옥·구사회, 『대한제국기 주불공사 석하 김만수의 <일기> 자료에 대
하여』, 『온지논총』 18집, 온지학회, 2008.
유길준(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
이형대, 『<서유견문>의 서구 여행 체험과 문명 표상』, 『비평문학』34호, 한
국비평학회, 2009.
정홍모, 『20세기 초 서양 기행가사의 작품 세계』, 『한민족문화연구』 31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최 식, 『1896년 아라사 사행』, 『환구일기』와 『환구음초』 -사행록의 관점에
서 바라본 아라사 사행-, 『한문학보』20권, 우리한문학회, 2009.

- 최현재, 「미국 기행가사 <해유가>에 나타난 자아인식과 타자인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5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허경진, 「유길준과 『서유견문』」, 『어문연구』 312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홍재휴, 「가사」, 『국문학신강』, 국문학신강편찬위원회 편, 새문사, 1985.

【Abstracts】

World Travel and Cultural Discourse by Koreans(Choseon people) in Transition Period

Gu Sa-whae

After implementation of the open-door policy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orld travels by Koreans were not limited to China and Japan but to the Western world. This paper is a discussion on world travels by Koreans and the following discourses on the civilizatio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Gaehwagi (Period of Enlightenment) and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zation.

I, first, glanced through the records of world travels made by Koreans in that period. Started with Seoyugyeonmun (1895) by Giljun Yoo, Yeonghwan Min and his party each left a record in 1896 and 1897. Mansu Kim, the Korean Minister to France, Jongeung Lee and Hanhong Kim each left records of world travel in 1901, 1902 and 1908, respectively.

Each of their records from the Transition Period displays astonishment and inquisitiveness about the modern civilization. They wanted to bring in the advanced Western civilization, institution and scientific progress to Korea to inspire enlightenment. With this new door open to the Western hemisphere, we were able to moved away from the previous notion that China was the center of the world and taking notice of world geography with expanding time and space. Another common substance in their journals was a sense of anguish they felt regarding the fallen behind

realities of their home state.

Key words: Giljun Yoo, Yeonghwan Min, Mansu Kim, world tour,
Cultural Discourse, travel description.

이 논문은 2016년 1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3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